한국을 AI 거점으로… 글로벌 인력 1000명 양성

〈2020년까지〉

SAMSUNG 삼성의 미래

❷ 인공지능 (AI)

세계적 연구인력 확보에 총력전
스타트업 비브랩스·플런트 인수
'넥스트Q 펀드' 조성해 투자 지속

13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8'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현석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삼성전자 몬트리올 AI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전 세계 거점에 AI 연구센터 설립, 연구 인력 영입, 포럼 개최 등을 하며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AI를 삼성의 4대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도 AI 기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일부터 20일 동안 북미와 유럽을 돌며 AI 등 신사업 발굴에 집중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에서 풀려난 이후 6번째 출장이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전 세계 주요 지역에는 AI 연구센터가 잇따라 설립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 AI 총괄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실리콘밸리, 5월 영국 케임브리지·캐나다 토론토·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9월 미국 뉴욕에 이어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몬트리올은 북미 지역의 AI 기술 연구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4번째로 개소한 몬트리올 AI 연구센터를 통해 그간 협력해온 맥길대학교, 몬트리올대학교 등의 세계적인 AI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리콘밸리 AI 연구센터장인 래리 헥 전무는 "일상생활에 AI 기술을 적용하려면 현재 당면한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AI 석학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는 AI 인재가 풍부한 지역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해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AI 연구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머신러닝 전문가 래리 헥 박사, 앤드루 블레이크 박사를 비롯해 AI 기반 감정인식 연구로 유명한 마야 팬틱 교수, AI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다니엘 리 박사, 뇌신경공학 기반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 세바스찬 승 박사 등을 영입했다.

AI 관련 스타트업 인수와 투자도 늘리고 있다. 2016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비브랩스를 인수했고, 지난해 11월 대화형 AI 서비스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플런트를 사들였다. 올해에는 AI 스타트업 투자 전용펀드 '넥스트Q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 등을 갖춘 미국 스타트업 룸(Loom).AI에 300만달러(약 32억원)를 초기 투자했다. 룸.AI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 시각 효과 등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3D 아바타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갤럭시S9의 'AR(증강현실) 이모지'의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스위스의 기업용 스마트워크 모바일 플랫폼 업체 비키퍼, 헝가리의 자율주행차 기술 기업 AI모티브, 벨기에의 사물인터넷(IoT) 기업 센티안스, 이스라엘의 AI 음성인식 플랫폼업체 오디오버스트, AI 딥러닝 업체 알레그로, 스웨덴의 AI 기반 지도 제작업체 맵필러리 등에 투자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AI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 AI 포럼 2018'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틀간 약 150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삼성리서치 소장인 김현석 사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AI 분야의 최신 기술과 미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 포럼을 통해 얻은 통찰의 결정체가 인류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0년까지 한국 AI 총괄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 거점에 약 1000명의 AI 선행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6개월째 투자감소… 반전 모멘텀 만들 것"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회의
"정부·정치권, 규제혁신 결단내고
근로시간 단축문제 마무리 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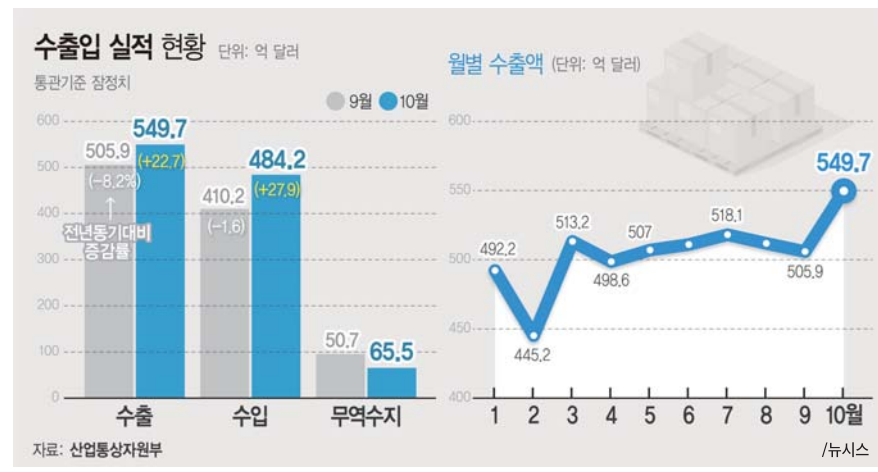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8조7000억원을 들여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는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며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올 수출 사상 첫 6000억 달러 돌파 전망

산업부, 10월 550억 달러 집계
6개월 연속 500억 달러 넘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549억7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2위 기록이다.

월별 수출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올해 총 7번이나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월 수입은 484억2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7.9%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65억5000만 달러로 81개월 연속 흑자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품목 고부가 가치화 노력, 무역보험 확대 등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지역별 편중 없는 수출 성장유도,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국제유가 및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1~10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6.4% 증가한 5053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첫 연간 60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10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력 품목 중 석유제품(75.5%), 일반기계(51.7%), 석유화학(42.9%), 차부품(36.9%), 자동차(35.7%), 섬유(30.4%), 반도체(22.2%), 철강(22.2%), 가전(5.6%), 컴퓨터(3.4%) 10개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115억9000만 달러)은 6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역대 2위 실적을 냈다.

일반기계(49억9000만 달러)와 석유화학(44억9000만 달러) 수출은 역대 최고다.

자동차는 최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 지역 수출이 증가하며 2개월 만에 반등했다.

디스플레이(-7.9%), 무선통신기기(-18.2%), 선박(-55.0%) 등 3개 품목은 해외생산 확대와 판매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 수출 증감률은 독립국가연합(85.2%), 일본(50.5%), 인도(48.6%), 미국(47.6%), 중남미(45.0%), EU(37.1%), 아세안(19.2%), 중국(17.7%), 베트남(10.2%), 중동(-3.9%) 등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 경기 상승 등으로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13개월만에 최대폭

통계청, 전년동기 比 2% 상승
채소류 13.7%, 쌀 24.3% 올라

소비자물가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곡물·채소 등 농산물과 석유 제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 가계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일 공개한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작년 10월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 2.1% 이후 13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 13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산물이 14.1%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3%p 끌어올렸다.

채소류 물가는 13.7% 상승했다. 작년 8월 22.5% 오른 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쌀(24.3%), 토마토(45.5%), 파(41.7%), 무(35.0%) 고춧가루(1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석유류는 11.8% 올라 전체 물가를 0.53%p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석유류는 올해 6월부터 5개월째 1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휘발유는 10.8%, 경유는 13.5%,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1.0%, 등유는 15.9% 상승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6개월간 약 15%내린다.

/세종=최신웅기자